

“가계 신용위험, 나빠질 것” 2003년 ‘카드사태’ 후 최악

비은행권 대출 문턱 한층 높아질 전망... “리스크 관리”



은행권이 올 3분기 가계 신용위험이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가장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국내 은행의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33으로 전망됐다. 지난 2분기(27)보다 6포인트 더 오른 것이다.

민약 전망치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 2003년 4분기(32) 이후 14년여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게 된다.

대출행태조사는 국내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모두 199개 금융기관의 여신총

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은이 지난 3개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신용위험지수의 경우 0을 기준으로 100과 -100사이에서 플러스(+)이면 ‘증가, 마이너스(-)이면 ‘감소’ 쪽이 더 많다는 얘기다.

기업의 신용위험도 대기업(7)이 전월보다 4포인트 오르고, 중소기업(30)이 전월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이 모두 올라가면서 종합 지수도 30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2012년 4분기(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권의 대출 문턱은 중소기업과 가계 일반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

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6으로 전분기(-1)보다 소폭 떨어졌다. 지난 2015년 4분기부터 2년반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올 3분기 완화 쪽으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태도는 전분기 7에서 13으로 올라섰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 일반대출에 대한 지수도 7로 전분기(-3)보다 완화됐다.

다만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강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 지수는 -3으로 전월(-20)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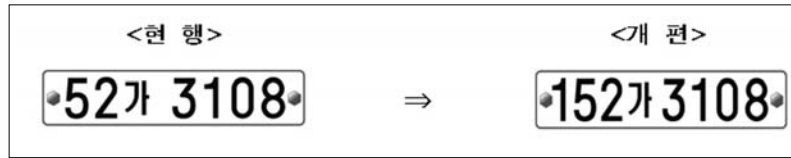
비은행권 대출 태도는 모든 업권에서 강화될 전망이다. 이달 정부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대출태도는 각각 -6, -29로 조사됐다.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 신용카드사의 대출태도도 -13으로 전분기(-6)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생명보험사의 대출태도도 -3으로 전월(-2)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새 자동차 번호판, 내년 9월 부터 세 자리로 바뀐다

승용차 2억1000개 번호 추가로 확보 돼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에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 용량 확대방안을 이같이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관’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전문가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해 두 가지 대안(숫자추가/한글

받침추가)으로 최종 압축했다.

이후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언론, 인터넷 포털, SNS, 자동차·교통 관련 웹사이트,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자체 등록사무소 등 전국적 홍보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및 개별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선호도가 높고 용량확보 및 시인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호체계 개선을 확정했다.

지난 3월 11~25일 103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숫자추가 78.1%, 한글받침추가 21.9%의 선호도를 나타냈다. 지난 4월 4~17일 600명을 대상으로 한 개별 여론조사에서도 숫자추가 방식 선호율이 62.1%로, 한글받침추가(37.9%)보다 높았다.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억1000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 번호체계는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용량확대방안 확정 후 번호관 디지털과 변경서체 도입에 즉시 착수해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뉴시스

광주신세계, 더위·눅눅함 잊게 하는 시원한 특가

오늘부터 12일까지 여성 패션대전 진행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6일부터 12일까지 1층 시즌 이벤트 홀에서 ‘여성 패션대전’을

진행한다.

장마전선과 태풍으로 인한 비와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패션 아이템은 언더웨어와 원피스다.

전통적으로 언더웨어 장르의 여름 매출은 다른 계절에 비해 3~10%가량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덥고 습한 날씨에 새로운 언더웨어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짧은 원피스는 높은 통기성으로 다른 옷에 비해 상대적으로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정미철에는 보행 중 지면의 빗물이 튀어 옷이 오염될 걱정을 덜어주기 때문에 최근 같은 오락가락한 날씨에 더욱 인기가 많다.

언더웨어와 원피스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 속에 광주신세계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외로루’ ‘비너스’ 등 언더웨어 브랜드와 ‘LAP’, ‘플라스틱 아일랜드’, ‘모조에스핀’, ‘지코트’ 등의 여성브랜드가 참여하는 여성 패션대전을 진행한다.

김연숙 기자

“금리 1% 오르면 가구당 연평균 이자 94만원 더 든다”

“고령층·저소득·지역업 가구 부담 올라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변동금리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평균 이자지급액이 약 94만1000원 올라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 추산’ 보고서를 통해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담보대출 보유 가구의 61.4%, 신용대출 보유 가구의 66.5%가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가구별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높은 수준이며 금리인상으로 108만 2000원의 이자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 담보대출 평균은 1억 800만원,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평균 3188만원으로 고정금리 담보대출 9179만원, 고정금리 신용대출 2977만원보다 큰 평균금액을 보였다.

변동금리 부채 보유 가구의 금융부채 중에서 대출금액에 대해 1%포인트 대출금리 인상을 가정할 경우 연평균 이자지급액은 496만1600원으로 94만1000원이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금리인상시 50~59세인 경우 연간 이자지급액이 574만10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금리인상으로 108만 2000원의 이자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은 60세 이상 연령대 가구주의 경우 16.8%로 가장 높았으며 금리인상으로 3.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주 지위별로 보면 가구주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연간 122만 2000원으로 가장 높은 이자지급액 증가를 보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 상승폭도 2.0%포인트로 상승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2014년 이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가계 신용 기준) 비율은 2014년 136%에서 2015년 143%, 2016년 15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뉴시스

금호고속, ‘7년 연속’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금호고속이 7년 연속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금호고속은 5일 한국표준협회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고속버스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고객 중심의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된다.

금호고속은 리더십, 전략, 고객과 시장 중시, 정보와 지식, 인적자원, 부문별 경영성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금호고속은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계 내에서

‘도로 위의 퍼스트 클래스’로 불리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개발과 도입을 주도하고 한 층 더 진화한 고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노력해왔다. 또 고객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업계 최초로 첨단 운전지원시스템(ADAS)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덕연 금호고속 사장은 “국내 운수업체의 선두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